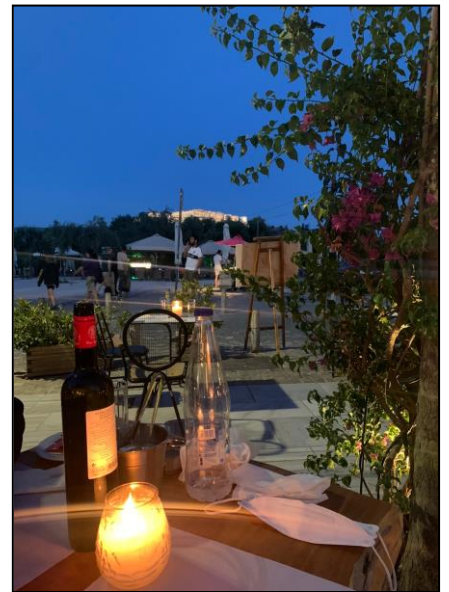


그리스를 그리다: 아테네

어느새 그리스에서의 마지막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스의 중심이자 그리스 문명의 꽃, 아테네(Athens, Αθήνα)에서 이 그리스 탐험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다. 수니온(Sunion, Σούνιο)과 산토리니(Santorini, Σαντορίνη), 델포이(Delphi, Δελφο), 메테오라(Meteora, Μετέωρα)를 지나오며 차곡차곡 쌓인 기대감이 남은 여정을 더욱 설레게 했다. 인천공항에서 나눈 어색한 인사가 친근함으로 바뀌었고, 위대한 유산으로 손꼽히는 그리스 유적을 직접 볼 시간이 성큼 다가왔다.

아테네를 제대로 만나기 전날, 기념품 구매를 위해 아테네 시장을 둘러보며 얼핏 본 아크로폴리스(Acropolis, ἀκρόπολις)는 먼 거리에서도 웅장함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파르테논(Parthenon, Παρθενών) 신전은 아테네 어디에서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그 웅장함은 더 빛을 발했다. 노란색 조명에 쌓인 모습은 시선을 땔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아테네 시장에서 바(bar)로 이동하는 내내, 여기저기 감탄하는 말이 들려왔다. 산토리니에서 본 환상적인 노을만큼이나 아테네의 노을도 인상적이었다. 여행 프로그램에서 보던 아크로폴리스의 야경을 마주하며 느끼게 된 감격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파르테논 신전의 야경을 배경 삼아 가볍게 와인을 기울이던 순간을 영원히 말하지 않을까. 좋은 사람들, 맛있는 안주와 와인, 그리고 빛나던 아테네의 야경까지 곧 방문할 아크로폴리스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데 충분했다.



아크로폴리스 야경과 와인

아테네 호텔로 돌아온 우린 그리스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테네 호텔은 외곽에 있었는데 치안이 좋지 않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로비에서 출입구를 힐끔거릴 때마다 직원의 눈길 이 따라붙었다. 외부로 나가려고 하면 언제든지 말릴 준비가 되어있는 것처럼 걸음마다 시선이 옮겨왔다. 비록 나가지 못했지만, 호텔 테라스 너머로 보이던 기차길과 아테네의 작은 아파트만으로도 무척 좋았다. 기차가 늦은 시간까지 다녀 깜짝 놀라거나 잠에서 깨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 꿀아떨어져서 느낄 새도 없었다. 밤 열두 시가 지난 시간에도 기차 소리가 들렸다. 우리나라 처럼 교통이 잘 되어있나? 문득 막차 시간이 궁금해졌다. 룸메이트와 함께 여러 방법으로 검색해 봤으나 원하는 막차 시간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스어를 할 줄 알았다면 수월하게 찾을 수 있었을까. 밤에도 열심히 달리는 기차와 함께 잠든 아테네의 밤이 지나갔다.



아크로폴리스 입구

조금이라도 더 자기 위해 조식을 포기한 마지막 날 아침. 드디어 건축사와 문학 작품을 배우면서 막연하게 접했던 유적들과 마주할 시간이었다. 버스에 탑승

해 가이드님의 설명을 들으며 아크로폴리스와 한 걸음씩 가까워질 때마다 점점 더 큰 설렘이 자리했다. 근처에 마련된 주차장에 들어서자 엄청난 수의 버스가 우리를 반겼다. 수많은 여행객이 티켓을 들고 입장을 위해 가지런히 줄 서 있었다. 설렘 가득한 표정을 한 여행객들로 붐비는 입구를 보니, 놀이기구 탑승을 위해 대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정신없을 만큼 많은 인파와 끝없이 내리쬐는 태양이 혼을 쏙 빼놓았지만, 그것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목을 쭉 빼며 기다리는 순간이 가장 벅찼다. 얼른 굳게 닫힌 문이 열리기를. 십여 분 대기 끝에 창살 철문이 움직였고 우리는 인파에 휩쓸려 입장할 수 있었다.

그리스의 유적들은 대부분 바닥이 미끄러웠다. 표면이 거칠어 보이는 돌인데도 실제로는 광이 나며 반짝거렸다. 무거운 운동화 대신 샌들을 신은 탓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바닥을 보며 걸어야 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해 돌을 거쳐 간 탓에 반들반들해졌다는 말이 있다. 문지방 닳는다는 말이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닐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 다녀간 것인지 짐작도 되지 않았다.

열심히 바닥을 보며 걸은 지 수 분 후, 행렬의 앞쪽에서부터 탄성이 흘러나왔다. 멈춰서서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위를 올려다보니 거대한 건축물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어떤 것은 상아색 돌, 또 어떤 것은 하얀색 돌이었다. 돌의 색상이 다른 부분은 페르시아 전쟁으로 파손된 부분을 후에 보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건축물을 마주하자마자 사진을 남기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 들었는데 너무 거대한 나머지 한 화면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여러 번 나눠 찍을 수밖에 없었다.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는 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난 것은 헤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Herod Atticus Odeon, Ὀδεῖο Ἡρώδου τοῦ Ἀττικοῦ)이다. 헤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은 기원전 161년, 정치인 아티쿠스가 자신의 아내를 위해 지은 야외 음악당이자 극장이라고 한다. 기원전에 지은 이 음악당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존이 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또 자신의 아내를 위해 이 멋진 음악당을 짓고 아내가 예술적인 공연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던 남편의 다정함이 느껴져 음악당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 같다. 헤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에서는 지금도 오페라, 고전극 등의 공연을 한다고 한다. 나중에 이곳에서 직접 공연을 보게 된다면 음악의 감미로움과 공연장의 건축적 아름다움, 그리고 아테네 시내의 경치가 한데 어우러져 너무 감동적일 것 같다.



헤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



아크로폴리스 입구, 프로필라이온

헤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을 지나 아크로폴리스에 들어가는 입구인 프로필라이온(Propylaea, propylaeon)을 만나게 되었다.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프로필라이온을

보니 진짜 우리가 그리스 신화가 탄생한 곳에 왔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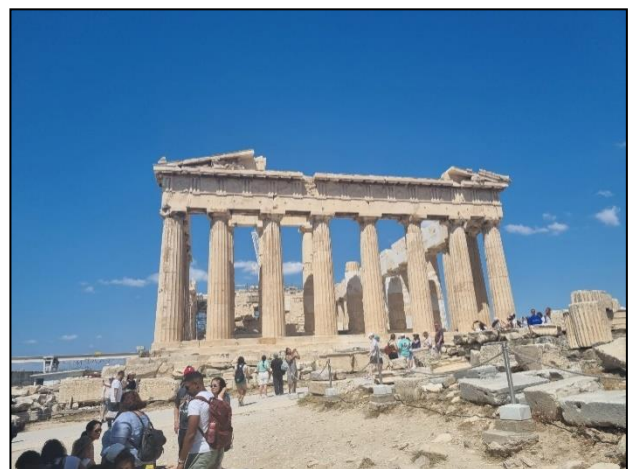
이 비로소 실감나기 시작했다. 이 프로필라이온을 통과하면 일반인들이 사는 곳과는 다른, 인간의 세상과는 구별되는 신들의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만큼 프로필라이온의 색깔과 규모 그리고 디자인이 신성하고 웅장하게 느껴졌고, 그때 아테네의 눈부신 태양과 푸른 하늘이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했다. 특히 프로필라이온은 중앙 통로와 그 옆에 좁은 통로가 따로 있었는데, 이는 신을 모시는 신전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아크로폴리스에 들어갈 때에 신전의 사제들과 같은 신성한 사람들과 일반인들을 구분하여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 이러한 건축 또한 아크로폴리스의 신성함을 더욱 강조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프로필라이온의 통로

마지막 날 아테네는 그리스에서 있었던 일주일 동안 가장 맑았고 또 더웠는데, 특히 아크로폴리스는 잠시 더위를 식힐 그늘 한 점 없어서 강렬한 태양을 그대로 느껴야 했다. 우리는 태양을 뚫고 웅장하고 거대한 신전을 자세히 보기 위해 고개를 들 때마다 평소보다 눈을 조금 더 크게 떠야 했다. 더운 날씨와 달리 세게 부는 바람을 피해 모자를 꼭 누른 채 일행을 따라 한 길로 쪽 올라갔다. 길을 따라가자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파르테논 신전이였다.

드디어 파르테논 신전을 만났다.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읽으면서 수도 없이 접했던 아테나 여신(Athena)의 신전을 직접 마주하게 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원전에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에게 바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신전을 직접 두 눈으로 보니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다. 정말 신기하게도 입구를 지나쳐 아크로폴리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바람이 너무나도 강하게 불어서 강한 햇빛에 모래바람이 더해져 머리가 마구 훑날리고 눈을 제대로 뜨고 있기가 매우 힘들었다. 이로 인해서 파르테논 신전과 아크로폴리스의 웅장함 그리고 이곳에 담긴 그리스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압도되는 느낌이였다.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은 9:4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고 건물 전체에 직선이 없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건축물이다. 뿐만 아니라 신전 곳곳에 다양한 예술적 디자인 및 조각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전의 지붕 바로 아랫부분의 페디먼트(pediment)에는 아테나와 포세이돈(Poseidon)이 아테네라는 도시의 수호신이 되고자 서로 겨루는 장면을 그린 것이 있다. 둘은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선물을 주는 신이 이 도시를 차지하기로 하였고, 아테네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테나가 포세이돈을 이겨 아테네를 자신의 도시로 만들었다. 이 싸움에

서 아테나는 올리브나무를 아테네인들에게 선물하였고 올리브유는 오늘날에도 그리스의 특산품으로서 전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스인들이 오늘날까지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지혜로운 아테나 여신이 정말 좋은 선물을 해준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스 신화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여신으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으로서 정의롭고 굉장히 힘이 센, 강한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지혜와 힘을 겸비한 아테나의 지지를 받은 그리스는 트로이 전쟁(Trojan war, Τρωικός Πόλεμος)에서도 승리를 거머쥔 수 있었다. 트로이 전쟁을 그린 대서사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The Iliad*)에서도 이러한 아테나의 지혜롭고 강한 전쟁의 신으로서의 면모가 그려진다.

and down their ranks the fiery-eyed Athena bore
her awesome shield of storm, ageless, deathless –
a hundred golden tassels, all of them braided tight
and each worth a hundred oxen, float along the front.
Her shield of lightning dazzling, swirling around her,
headlong on Athena swept through the Argive armies,
driving soldiers harder, lashing the fighting-fury
in each Achaean's heart – no stopping them now,
mad for war and struggle. Now, suddenly,
battle thrilled them more than the journey home,
than sailing hollow ships to their dear native land.

– **Homer**, <The Iliad>, Book 2, lines 528-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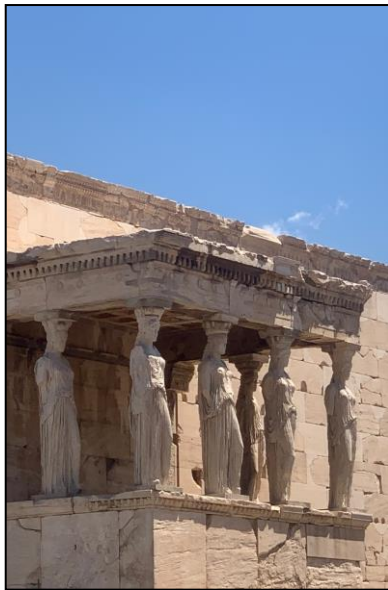
오랜 전쟁에 지친 그리스군은 점점 싸우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이때 아테나는 그리스군의 정신과 마음을 강하게 몰아세운다. 그리스군의 가슴에 분노와 격분을 일으켜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열망보다 전쟁에 대한 열광, 흥분, thrill을 느끼도록 하였다. 직접 본인이 피 튀기면서 싸우는 것을 좋아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이었던 또 다른 전쟁의 신, 아레스(Ares)와는 달리 아테나는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잘 다룰 줄 아는 똑똑함이 있었던 것 같다.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굳세고 강한 아테나 여신의 사랑을 받았기에 아테네가 서양 문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소크라테스(Socrates), 플라톤(Plato),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등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아는 유명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활동하고 서양 문명의 뿌리인 민주주의가 탄생한 발원지가 되었던 아테네에서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며 아테네 여신의 영광을



에렉테이온 신전

가슴 깊이 느꼈다.



카리아티드 여신상

파르테논에서 옆으로 고개를 돌리자 에렉테이온 신전(Erechtheion, Ἐρεχθεῖον)의 카리아티드 여신상(caryatid, karyatides)이 보였다. 서양 건축사를 공부하면서 언젠가 꼭 보러 가겠다는 다짐을 이룬 순간이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신상의 섬세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바람에 흔들려 흐드러지는 듯한 옷자락이 그대로 조각되어 있었다. 한참을 가만히 서서 바라본 에렉테이온 신전도 아테나의 신전이다. 이 신전의 주인은 포세이돈이 될 수도 있었다. 굉장히 유명한 신화가 얹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테나와 포세이돈은 아테네의 수호신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였다. 제우스(Zeus)의 의견에 따라 시민들에게 더 좋은 것을 내어주는 신이 수호신이 되는 방식이었다.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포세이돈은 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인 탓이었을까. 약속한 물은 소금물이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었다. 결국 올리브 나무를 약속한 아테나가 수호신이 되어 신전을 차지하게 된다. 아테네 곳곳에서 여전히 올리브 나무를 찾아볼 수 있다. 신화의 나라인 그리스의 옛 모습을 온전히 볼 수는 없지만, 올리브 나무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스 음식에는 언제나 올리브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종종 아테네 여신이 떠오르곤 한다.

아크로폴리스에는 또 다른 아테네의 신전이 있다. 바로 아테나 니케 신전(Temple of Athena Nike, Naos tis Athinas Nikis)이다. 니케(Nike)는 승리의 여신으로, 영어식 발음인 '나이키'로 잘 알려져 있다. 신전 안에 날개 없는 니케 상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고대에는 날개 없는 니케라는 뜻의 '니케 아프테로스' 신전으로 불렸는데, 사실 이 신전은 니케 신전이 아니라 아테나 여신 신전이라고 한다. 이 신전을 바라보면 아크로폴리스의 다른 건축물 보단 좀 더우아하고 경쾌하며 웅장하고 강한 느낌보다는 유연한 느낌이었다.



아테나 니케 신전

아테네인들은 스파르타인들과 끊임없이 계속되던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 신전에서 빌었다고 한다. 다른 건축물과는 조금 다른 형식이라고 느껴졌는데 이 신전이 아크로폴리스 건물 중 처음으로 이오닉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 건축물의 양식에는 이오닉, 코린트, 도리아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리스 답사를 떠나기 전 다같이 했던 스터디가 아크로

폴리스의 건축적 아름다움을 알고 깊이 느끼도록 큰 도움을 준 것 같다.



아크로폴리스의 여러 신전들을 지나 끝으로 향하니 전망대에 파란색 그리스 국기가 펄럭이며 흔들리고 있었다. 전망대에 올라서니 아테네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저 멀리 바다와 하늘이 섞여 경계가 흐려진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높이 있는 만큼 바람도 다른 곳보다 많이 불어서 모자를 붙잡는 손에 더 힘이 들어갔다. 여러 번 날아갈 뻔했는데 실제로 한 친구는 전망대에서 모자를 날려 보내고 왔다. 서로 흩어져서 둘러보고 다시 만난 친구의 얼굴이 허전해 물어봤더니, 아테네에 기부하고 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무래도 친구를 포함한 여러 명이 전망대에서 물건을 날려 보내고 왔을 것 같다.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면 주인 없는 물건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전망대에서 내려와 되돌아가면서 저 너머로 아레오파고스 언덕(Arios Pagos, Ἀρειος Πάγος)이 보였다. 시간이 촉박해 직접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아크로폴리스에서 내려다보니 아레오파고스

가 한눈에 보였다. 드문드문 양산을 쓴 관광객들이 언덕 위에 올라가 있었다. 아레오파고스는 이름에서 아레스를 떠올릴 수 있는데, 이는 아레오파고스에 관한 내용을 모를 때에도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이 언덕이 아이스킬로스(Aeschylus)가 쓴 『자비로운 여신들』의 배경이 된 언덕이라는 것을 알자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다. 한 학기 동안 배운 비극의 주 배경에 오게 되자 문학 작품에 훨씬 빠져드는 것 같았다.

아레오파고스 언덕은 법정으로 유명하다. 이름이 붙은 배경도 아레스의 재판과 연관되어 있으며, 비극 작품 내에서도 아테나가 이 언덕에서 재판을 여는 장면이 나온다. 언덕은 엄숙한 법정의 모습이라기보단 큰 바위가 놓여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어떻게 재판을 진행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아마도 강렬한 태양 아래, 높은 곳에서 아래를 굽어보며 더욱 포용하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진행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본다.

아레오파고스가 법정 역할을 하는 것을 신화와 비극에서 볼 수 있는데, 첫 재판은 아레스의 살인죄를 가리는 것이었다. 아레스는 자기 딸인 알키페(Alcippe)를 겁탈하려고 한 포세이돈의 아들 할리로티오스(Halirrothios)를 살해한다. 이에 분노한 포세이돈은 아레스를 아테네 법정에 세운다. 재판에서 올림포스의 열두 신은 아레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처음 열린 재판이 신에 대한 판결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잘못을 저지르면 신조차 인간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죄에 대한 처벌을 논의한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법 앞에 평등'을 느낄 수 있다. 그리스는 우리 문명의 시원으로 여겨지는데, 돌아보는 내내 여러 곳에서 그리스가 민주주의의 시초이자 인문학, 정치학의 발상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인간의 재판도 빼놓을 수 없다.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오레스테이아 3부작 『자비로운 여신들』에서 오레스테스(Orestes)가 법정에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어머니인 클리타임네스트라(Klytimestra)를 죽인 존속살인으로 재판받게 된다. 어머니를 살해한 후, 복수의 여신들에게 시달리던 오레스테스는 아테나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오레스테스는 자신의 살인이 아폴론(Apollo)의 신탁에 따라 진행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다. 아버지 아가멤논(Agamemnon)을 죽인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복수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신탁의 내용이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조화와 균형을 미덕으로 여겼다. 신화를 살펴보면, 그리스 진영의 병사가 사망하면 뒤이어 트로이 진영의 병사가 사망한다. 또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 아프로디테(Aphrodite)는 가장 추한 남신인 헤파이스토스(Hephaestus)와 결혼한다. 아폴론의 신탁은 남편을 죽인 부인을 자식이 죽임으로써 복수를 완성하며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아테나는 독단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인들을 초대해 배심원 역할을 맡긴다. 배심원들은 상호 변론을 듣고 한 명씩 순서대로 투표 항아리에 투표용지를 넣었는데, 그 결과 가부동수가 나오게 된다. 아테나는 재량권을 발휘해 오레스테스의 무죄에 투표를 행사했다. 어쩌면 인간 배심원들의 투표로 유죄일 수 있었던 오레스테스가 아테나의 결정으로 무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이 투표에서 재판관이 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오레스테스가 무죄를 받은 것에서 우리는 어머니를 죽인 자식의 죄보다 미케네의 왕이자 가장이었던 남편을 죽인 아내의 죄가 더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의 가부장적 문화가 투영된 재판 결과임을 보여준다. 언제나 앞서 있는 것 같은 그리스는 사실상 현재까지 가부장 잔재가 남아있다고 한다. 아테네 거리를 걸으면서 의아했던 점이 있다. 오후 시간대에 카페를 가보면, 여성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 남성이 테라스 자리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여성들은 일하는 경우가 많아 카페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사소한 점에서 한국과 다른 가부장적 요소를 느낄 수 있었다.

멀리서 아레오파고스 언덕까지 둘러보고 아크로폴리스를 내려온 후, 그리스 일정의 최종 목적지로 향했다. 바로 근대 올림픽 경기장이었다. 며칠간 이어진 강행군과 더위로 지친 일행들은 버스에서 더위를 식히며 짧은 시간 휴식을 취했다. 근대 올림픽 경기장은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짧게 방문했다. 입구에서도 내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여서 앞에서 보아도 충분했다. 근대 올림픽 경기장은 현재 올림픽이 열리지 않지만, 최초의 올림픽 개최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올림픽이 열리지 않을 뿐 다른 스포츠 경기는 여전히 열리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은 그 자체로 승리와 평화의 상징이어서인지 경기장을 아우르는 커다란 트랙을 보는 동안 차분해지는 기분이었다. 경기장 전체가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더욱 커다랗고 웅장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이곳은 신과 직접 얽힌 신화는 없지만, 올림픽의 기원은 신에서 찾을 수 있다. 디오니소스 신을 기리기 위한 도시 대디오니시아 축제 등 올림픽의 기원이 되는 여러 활동은 신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올림픽은 신에서 발전해 인간이 이를 주최하고 정신을 이어받아 현대까지 전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열렸던 도쿄 올림픽을 너무 재밌게 보아 올림픽에 관한 관심이 더욱 올라간 시점에서 첫 올림픽이 열렸던 곳을 경험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 만약, 아테네에서 다시 한번 올림픽이 열린다면 꼭 시간 내어 재방문하고 싶다. 그리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다. 인문, 정치, 예술 어느 것 하나 그리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인문학의 발상지를 직접 보고 느낄 기회를 얻은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한다.